

대전비구니청림회 스님들이 성도절 기념법회서 불교의식을 올리는 모습. 사진제공=청림회

문화예술 어우러진 성도절 법회

대전비구니청림회, 제33회 성도절 문화예술제

성도절을 맞아 문화예술제로 부처님 성도를 기린 기념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대전비구니청림회(회장 일권)는 1월 13일 대전 청림회문화회관에서 제33회 성도절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문화예술제에는 대전지역 비구니 스님을 비롯해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 석준 스님 등 스님들과 허태정 대전시장 등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삼귀의 등 불교의식과 함께 발원문 낭독, 지역 청소년 장학금 전달, 문화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비구니청림회장 일권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불자들은 우월보다 정진으로 지혜로운 인성이 충만할 때 행복감으로 살 수 있다. 성도절을 맞아 오늘 모인 인연을 이어 수행정진 해가자"며 "또한 최근 설립된 청림회관이 대전 시민들의 안심도량 전법도량이 되도록 한층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성도하셔서 하신 말씀이 곧 나의 주인은 나고 내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라며 "내가 주인 노릇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을 가슴에 새기고, 성도의 의미를 살려 열심히 정진해가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법회에서는 보문중·고교 학생과 대전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원 15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또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것을 찬탄하는 축하공연도 문화제 형식으로 이어졌다. 문화제에서는 동학사 학인 스님들의 헌공의식과 함께 청림회합창단의 공연과 이은용의 색소폰 연주와 이미정 숨결무용단의 춤사위가 펼쳐져 대중의 열띤 박수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국제교류 다짐한 여성불자들

한일불교문화교류協 여성부, 기해년 신년하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가 새해를 맞아 국제사회 속에서 불교문화로 화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는 1월 16일 부산밸류호텔 2층 연회장에서 기해년 신년하례를 개최했다.<사진> 신년하례에는 상임이사 양산 스님, 사무총장 향운 스님을 비롯해 백명숙 회장, 김석조 고문, 박동희·조경순·남영희 부회장 등 임원과 회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양산 스님은 "국제 관계는 어렵고 힘든 과제다. 하지만 부산에서 든든히 자리 잡고 이끌어 주는 한일불교 여성부의 원력과 노력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화합하자"고 당부했다.

사무총장 향운 스님은 "자비희사와 사무량심으로 더욱 성장하는 여성부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명숙 회장은 "이번 한 해 스님들께 인사하며 좋은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정진해 나아가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지원하고 일본을 방문해 한국불교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알리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등 불교 대표 축제에는 시민을 위한 무차만발공양, 동지 팥죽 나눔 행사 등으로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새해 가야불교 역사 조명 매진"

가야문화진흥원, 문화탐방 등 프로그램 마련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가야사 복원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비 예산이 확보되면서 유적 발굴 및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해 유적 발굴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 불교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에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 2019년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쳐 가야 불교를 널리 알릴 계획을 세웠다. 가야문화진흥원은 가야사 복원 사업에 불교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인해)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을 탐방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가야사 내 불교가 지닌 가치 및 중요도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가야 역사 문화탐방 금빛 물결 따라(이하 금빛 물결)'를 진행한다. 금빛 물결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김수로 왕릉에서 출발해 봉황동 유적, 대성동 고분, 수릉원 등 가야 유적지를 탐방한다. 현재 유적 탐방지는 김수로 왕릉 근처로 접근도가 용이한 곳을 먼저 방문하고 이후 점차 늘려 확장할 예정이다.

가야문화진흥원은 금빛물결에서 역사 탐방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

속도 내는 가야사 복원 사업
가야불교 연구도 성과 내야
매월 시민문화체험 제공부터
학술세미나까지 행사 다양해

는 체험 프로그램도 연계해 진행하고 다채로운 불교문화를 소개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다도 및 명상 프로그램과 전통놀이 등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은 가야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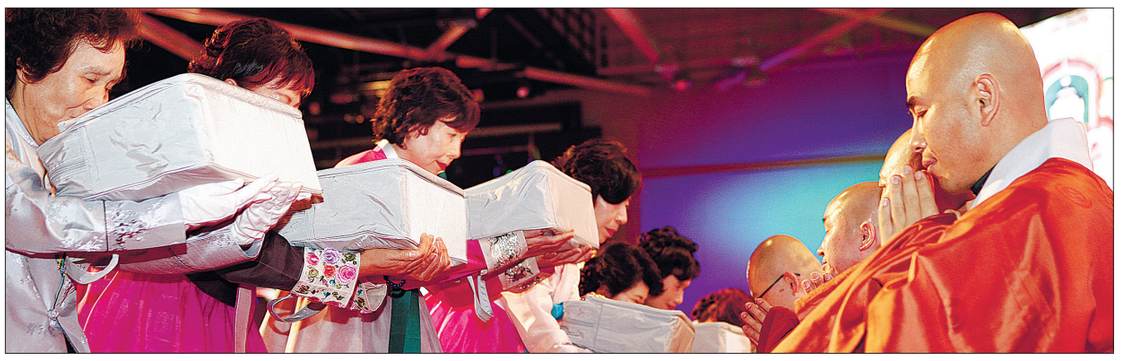
가야문화진흥원은 이뿐 아니라 깊이 있는 가야사 연구를 위해 해외탐방에도 착수한다. 오는 1월 24~27일 가야문화진흥원 스님들은 일본 북 큐슈로 문화탐방을 나선다. 일본은 가야로부터 무기류, 토기, 갑옷 등 철기 문화를 전래 받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일본탐방을 통해 가야문화진흥원은 일본에 전해진 가야문화 흔적을 생생하게 확인하고 연구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탐방에는 김용탁 강산문화연구원 원장이 동참해 전문 설명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며 해외탐방은 더욱 확대될 방침이다.

문화탐방 외에 깊이 있는 가야불교 연구 발표 및 세미나도 진행된다. 현재 가야문화진흥원은 가야불교연구소에서 4년 동안 매주 금요일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를 이어왔다. 현재 〈삼국유사〉 원문 강독 및 해석이 완성된 상태이며 이사장 인해 스님은 "기존 해석본에서 해석 오류를 발견했고 유학자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을 수 있어 큰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인해 스님은 "역사학자들이 '상교(像敎)'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 불교가 당시(서기 48년)에 전래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상교가 전래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불교가 민간에 보편화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작은 해석 오류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를 기반으로 바른 해석을 내놓고 공론화하는 작업을 통해 가야불교를 바로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야문화진흥원은 지난해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학술발표와 축제의 장도 열어 가야불교를 알리는데 나아갈 것이라 전했다. 이 가운데 인해 스님은 "가야문화진흥원은 가야사의 진수를 보여주는 〈삼국유사〉 가락국기 연구와 장유사 및 연기 사찰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어 지원 및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해 스님은 김해시 사업이 발굴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에도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현재 김해시가 세운 사업 계획은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및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 봉황동유적 확대정비 사업 등 유적발굴과 정비가 주를 이룬다"며 "가야사에 불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가야 역사 연구에 불교 학자와 스님들의 구전 등 연구 활동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가 봉행한 제8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법회에서 재가불자들이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리고 있다.

"성도일, 승보에 공양 올립니다"

조계종부산聯, 제8회 성도재일 승보공양법회

깨침의 별빛이 빛나던 부처님 성도일을 기념하며 부산불자들이 승보를 예경하고 공양물을 올렸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1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8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법회를 봉행했다.

승보공양법회는 신묘장구대다라니합송과 도량청정결계로 시작해 성도재일을 알리는 홀로그램 공연, 환영사, 대회사, 격려사 및 축사가 이어졌다. 재가자들의 승보공양 이후 승가는 축복경으로 축원하고 공양 올린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아울러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부산시장상을 명정지역아동센터와 양재생 조계종부산연합회 신도회장에게 시상했다. 이번 승보공양법회에는 150여 명의 조계종부산연합회 어린이연합 합창단이 맑은 음성으로 음성공양을 올려 특별한 시간을 선물했다.

특히 이번 승보공양은 재가자뿐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의 자비봉사모임인 화엄회 스님들이 직접 나서 공양물을 모았다. 이는 육바라밀 중 보시바라밀 실천을 통해 재가자들이 인색함을 여의고 보살도의 기쁨을 알도록 돕기 위해서다.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심산 스님은 "재가자들이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승보에 공양 올림으로 삼보의 은덕에 보답하는 자리가 바로 승보공양법회"라며 "오늘 인연으로 바른 법문과 수행자의 참된 모습을 통해 정법의 길로 이끄는 스님들께 예경하는 마음을 살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 수석부회장 원허 스님, 화엄회장 상화 스님 등 180여 명의 스님들과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등 재가자 20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운문사승가대학 인재 31명 배출

1월 15일 총 31명 졸업

비구니 인재 양성의 산실인 청도 운문사가 승가대·대학원 졸업생을 배출, 불교 발전에 힘쓸것을 당부했다. 청도 운문사승가대학(학장 진광)은 1월 15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운문사승가대학(제55회)·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제7회) 졸업식을 개최하고, 한국불교를 이끌 불교 비구니 인재 31명을 배출했다.

이날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불교발전과 포교를 위해 늘 고민하는 수행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운문사승가대학장 진광 스님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다. 운문인의 자긍심을 갖고 동체대비의 자비수행으로 부지런히 정진해 부처님의 이타행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운문사는 1958년 강원 개원 이후 현재까지 2063명의 비구니 불교인재를 양성, 국내 최대의 비구니 교육도량으로 기여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1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총장실 : (02)511- 1080
▶http://www.njutcm.co.kr